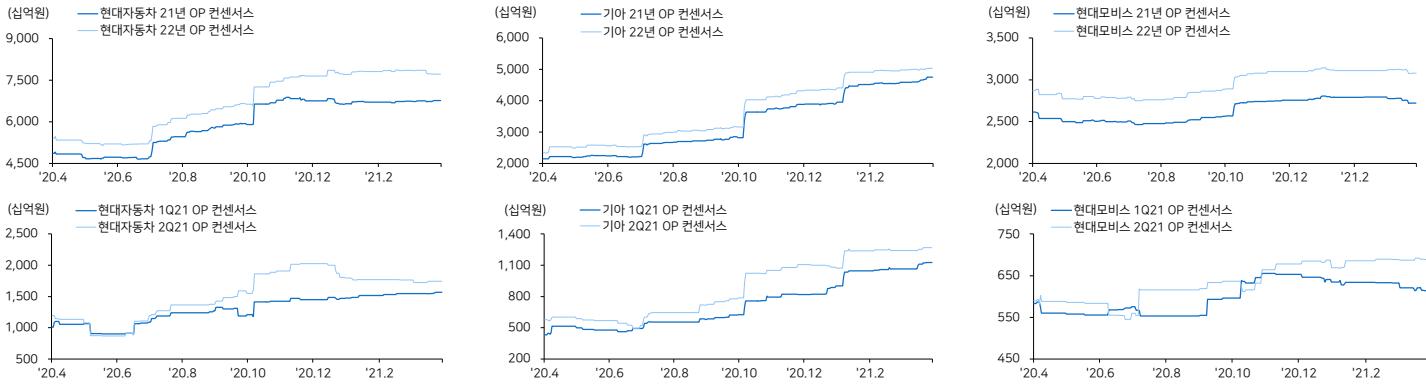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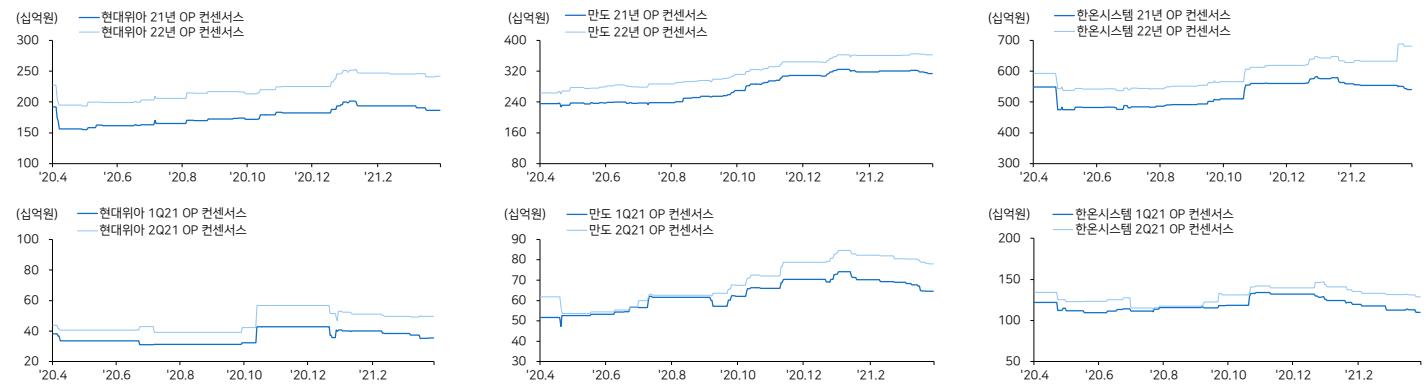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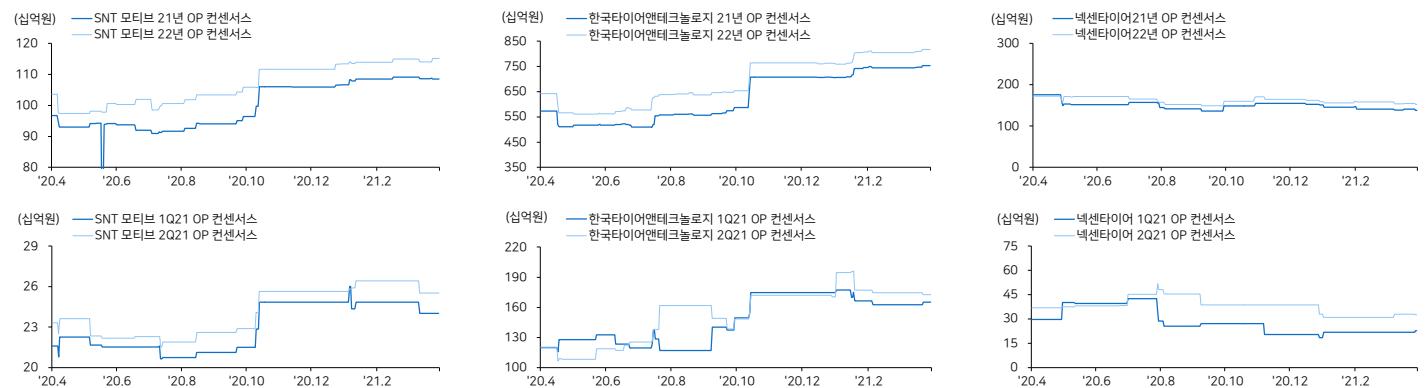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전기차 증가에 배터리도 ↑...기아-SK이노, 배터리 순환경제 협력 (전자신문)

기아와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순환 경제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기아는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재이용하기에 잔존 성능이 낮은 배터리를 SK이노베이션에 공급하고, SK이노베이션은 이를 분해해 금속자원을 회수하는 방식.
<https://bit.ly/3t1GdBL>

현대차, 아이오닉5 AR 이용 '아웃사이드 아카데미' 론칭...내셔널지오그래픽 '협업' (THE GURU)

현대자동차가 내셔널지오그래픽과 함께 미국 3대 국립공원을 증강현실(AR)을 통해 체험하는 콘텐츠를 제작함. 현대차의 친환경 차량을 이용해 드라이브하는 콘셉트로 만들어져 브랜드 인지도 제고가 기대됨.
<https://bit.ly/3e5lyr8>

포드차 '반도체 부족에 올해 생산 차질 110만대 예상' (연합뉴스)

미국 포드자동차는 올해 1분기에 수년 만의 최고 실적을 올렸지만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올해 110만대에 달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경계감을 표시함. 이로 인해 한화 약 2.77조원의 EBIT 감소가 예상된다며 언급.
<https://bit.ly/3e6dbNj>

Tesla's new, 'mind-blowing' Full Self-Driving Beta is two weeks from release (Teslarati)

테슬라 CEO 일론머스크는 '2주 안에 FSD의 새로운 베타버전을 출시할 것'이라고 언급. 테슬라는 FSD에 적용될 가장 큰 변화는 레이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퓨어 비전'으로의 전환이라고 1Q21 업데이트 레터에서 설명.
<https://bit.ly/3e6dbNj>

교통정리 꿈 현대차, B2B 자율주행·모빌리티 선점 나서 (IT조선)

현대차와 현대오토에버는 B2B 자율주행·모빌리티 시장 공략에 나서는 중. 산업단지 등 B2B 현장에 적용되는 자율주행·모빌리티 솔루션은 대외적 주목도는 덜하지만 시장성이 확고하며 현장 적용사례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https://bit.ly/3u5KksR>

옛 대우차 루마니아 공장, 포드 전기차 생산기지 '탈바꿈' (THE GURU)

포드 유럽총괄 사장은 루마니아 크라아우바(Craiova) 공장에서의 전기차 생산 계획을 공식화함. 포드는 현재 이곳을 경·소형차 유럽 생산기지로 활용중이나 전기차 라인업 확대를 염두에 둔 경형 상업용 차 신모델 생산 계획을 확정한 것.
<https://bit.ly/3xDf3EL>

테슬라 & BYD, 中 전기차 시장 실적 ↑...장악력 강화 (파이낸셜뉴스)

세계 최대의 전기차 소비자를 보유한 중국에서 전기차 업체들의 호실적이 이어지는 중. 테슬라의 1Q21 중국 매출은 한화 약 3.4조 원으로 yoy 238% 증가하였으며, BYD 역시 yoy 108% 증가한 한화 약 7.7조원의 매출을 달성.
<https://bit.ly/3sYY8Y>

Baidu will charge for fully driverless robotaxi rides in Beijing from May (KrAsia)

중국 인터넷 기업 바이두는 중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로보택시 유료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실시하여 승객에게 요금을 부과할 예정. 초기에는 승객 불안감 해소를 위해 차량에 운전자가 동승할 예정.
<https://bit.ly/3aQK12C>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